

다른 세계로 먼저 떠난 심재룡 교수를 생각하며

이 명 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1961년에 심재룡 선생은 서울대 철학과의 한 식구가 되었다. 43년 동안 철학과의 식구로 이 세상에서 지내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갔다. 입학 당시 그의 이름은 심광웅(沈光雄)이었다. 심광웅 하면 그 당시 서울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겐 “천재”로 이름나 있었다. 고교졸업 때는 전체수석으로, 서울대학교 입학 때는 전체 3등을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61년 철학과 입학동기에 박순철씨가 전체 수석을 하는 바람에 심광웅은 철학과 수석이라는 자리마저 얻지 못했지만.

“광웅”이라는 이름은 일본식 이름이라고 “재룡”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것 같다. 그의 형님인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심재기” 선생과 향렬이 같은 이름으로 개명된 것이다.

61년 철학과 입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해서 그 당시 입학정원 25명을 넘겨 27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수재들이 너도 나도 철학을 탐냈던 때였다. 특히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이 철학과로 몰려들었는데, 모르긴 하지만 그 당시 서울고등학교에 우리 철학과 선배로서 나중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이상철 선생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다. 이상철 선생은 당시 서울고등학교 독일어 선생이었다고 한다.

나의 동기였던 권현과 함께 심광웅, 길희성은 나의 독서친구들이었다. 우리는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이색적인 철학책인 A. J. Ayer의 「Language Logic and Truth」를 같이 읽었다. 그 다음엔 Wittgenstein의 「Tractatus」도 같이 토론했던 것 같다. 그 당시 세상의 관심은 온통 실존철학에 모아졌던 때라, Ayer와 같은 반형이상학적 철학자의

저술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으며, 더구나 Wittgenstein은 당시의 철학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것이었다.

심광용은 그 당시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그 당시 대학신문 기자는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었다. 대학신문 기자라 하면 한번 쳐다보는 처지였다. 나는 Ayer의 실증원리(Verification Principle)를 반박하는 글을 써서 심광용 기자에게 주면서 대학신문에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얼마 후 철학잡지 『Mind』에서 Ewing의 실증원리 반박논문을 우연히 접하고서는 심광용 기자에게 나의 글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결국 나의 글은 대학신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심재룡은 그 후 경향신문기자를 거쳐 Fullbright 장학생으로 하와이대학으로 갔다. 그때 나는 공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병역을 끝낸 후 브라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자주 서신을 주고받았다. 지금도 기억에 뚜렷한 것은 그가 당시 불교를 공부하면서 Wittgenstein의 Tractatus에 나타난 사상을 불교사상과 비교연구한 논문들을 적어 보내주었던 것이다. 나는 학부졸업논문으로 Wittgenstein의 Tractatus에 관해 썼지만, 그것이 불교사상과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나와 마찬가지로 학부졸업논문을 Wittgenstein의 Tractatus에 관해 썼던 심재룡은 그런 비교논문을 발견하고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우리가 학부 다닐 때 마침 루뱅대학교에서 불교연구를 하고 막 돌아온 이기영 선생이 문리대에 강사로 나오셨는데 심교수와 나는 불교강의를 같이 열심히 수강했다. 우리는 이기영 선생 불교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첫 번째 학생들이었던 셈이다.

우리가 다시 한 식구가 된 것은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서다. 서울대 철학과에 동양철학교수 TO를 2명 더 보강한다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새로 들어온 교수가 심재룡과 길희성이었다.

심재룡 교수는 서울대에 온 후 누구보다도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우리과에서는 우리가 학생 때부터 정구채를 들고 다니시던 김태길 선생님을 비롯하여 한전숙 선생님이 단연 일급의 Tennis Player로 학내에서 이름이 나 있던 때에 신예 선수가 등장한 셈이다.

나도 그 신예 선수의 뒤를 따라 정구장을 드나들었다. 물론 안상진, 이상철 선생님들도 만만치 않은 Tennis Player였다.

심재룡 교수는 인문대 Tennis Club 회장, 철학교수 Tennis Club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수사회에 알려진 Tennis 애호가였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가 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젓는다. 그러나 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나중에 떠나고는 인간이 꿰뚫어볼 수 없는 신비에 싸여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기가 그 시차라는 게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먼저, 조금 나중의 격차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격차란 것도 별 것 아닌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떠나기 전까지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며 살았느냐다. 심재룡 교수는 어쩌면 너무나 열심히 살았기에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간 친구가 아닐까한다. 내가 아는 친구 심재룡은 60년대 학생 때부터 입안이 헐어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입안이 헐어 있었다.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기에 그의 입안은 늘 피곤에 싸여 있었을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누가 무슨 요구를 하건, 그는 항상 그렇게 해보자고 긍정의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체력은 저 끝없이 빌려오는 무서운 짐을 계속 지고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심재룡 교수는 서양철학의 사유의 세계로부터 시작하여 동양의 사유세계 속에서 온갖 사고의 가시밭길을 넘나들었다. 그가 걸어간 사유의 밭길이 후세의 사유의 행각에 하나의 큰 이정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의 사유의 열정을 기리기 위해 『철학논구』 이번호를 심교수에게 바친다.